

제4이통 진입, 무조건적 우려보다는 관망세 유지

Analyst 황성진

02) 3787-2658

hsj@hmcib.com

주요 이슈와 결론

- 미래부, 제4이통 시장 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과 일정 확정, 주파수 우선할당, 접속료 차등적용, 단계적 전국망 구축 등 비대칭 규제 지원 등으로 17년 중 서비스 개시하겠다는 복안
- 요금인가제는 폐지, 유보신고제 도입. 현실적인 경쟁상황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

산업 및 해당기업 주가전망

-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은 현재의 3자 과점구조의 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부정적 영향. 다만 포화된 통신시장, 막대한 초기 자금의 투입 가능성, 중복투자 우려 등 걸림돌들이 너무 많다는 현실적 제약 또한 존재. 무조건적인 우려보다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유효할 것

정책당국, 제4이통 진입을 위한 제도정비 및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 확정

전일 미래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과 '2015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 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확정발표안 지난 5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가안으로 발표되었던 내용과 큰 변함은 없는 내용이다. 골자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 4이통의 출범을 유도하는 것이다. 제 4이통 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 통신산업 구도개편을 유인함으로써 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 구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 다른 하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유효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은 궁극적으로 시장 자율적인 경쟁을 유발시켜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4이통 진입이 만약 실현된다면, 이는 기존의 3자 구도인 통신시장의 근본적 구도변화를 유발하여 요금/서비스/MS 경쟁을 더욱더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통신업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초반 포지셔닝에 있어 기존 MVNO 업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소형 MVNO들의 타격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1) 국내 통신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있고, 2) 특히 통신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자금이 투입되는 특성이 있어 자본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의 부실화 위험이 상존하며, 3) 국내의 통신 인프라와 보급율을 감안할 때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하는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조건들을 감안한다면, 제 4이통 진입에 대한 무조건적인 우려보다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요금인가제는 정책적으로 복잡했던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시킨다는 측면과 사전규제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나, 현실적으로 3사간 요금경쟁에 있어 큰 차이점을 유발하지는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요금인가제 폐지와 더불어 유보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제 운용을 통한 지배력의 진이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제4 이동통신 관련 향후 일정

| 시기 | 내용 |
|-----------------|--|
| 15년 8월말~9월말 | 주파수할당 공고 및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접수(할당신청 포함) |
| 15년 10월 |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자격여부 심사 및 결과통보 |
| 15년 11월~15년 12월 | 허가신청법인 대상 사업계획서 심사&선정 및 결과통보 |
| 16년 3월 |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할당 및 허가서 교부 |
| 17년 중 |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개시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HMC투자증권 정리

<표2>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 주제 | 내용 |
|---------------|--|
| 신규사업자 진입기반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된 주파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지원방안 마련 - 다만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을 허용할 방침 |
| 신규사업자 정책 지원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 우선 할당 : 2.5Ghz(TDD, 40Mhz 폭)과 2.6Ghz(FDD, 40Mhz 폭)을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 -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 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 구축,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 의무 부과 - 로밍제공 의무화 : 의무제공사업자는 사업시작 시점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신규 사업자에게 로밍 제공 -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 기간은 추후 결정 |
| 일대폰 경쟁력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기반의 경쟁촉진을 위해 일대폰의 시장 점유율을 '15년 10%, 16년 12%까지 확대(14년도 8%)하여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성장을 지원 - 유통망 확대를 위한 LTE&청년 계층 주 목표로 포털사이트 운영(15년 5월),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15년 9월에서 16년 9월로 연장), 도매대가 인하 (음성 10.1%, 데이터 31.3%),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16년 9월)연장 검토 등을 추진 |
|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 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 - 일정기간(15 일내에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검토기준도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간소화 - 요금제 출시기간이 단축(1~2 개월에서 15 일로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 도매시장 제도 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인가제 폐지 시,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 관련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제도를 정비 -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정사에서 수시로 확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음성접속료의 지속적인 인하 및 인터넷망 접속제도 정비를 통해 요금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망의 안정성을 제고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HMC투자증권 정리

▶ Compliance Not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황성진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 의견 분류

- ▶ 업종 투자 의견 분류: HMC투자증권의 업종투자 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 HMC투자증권의 종목투자 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MARKETPERFORM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15%P 이내
 - SELL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투자등급 통계 (2014.04.01~2015.03.31)

| 투자등급 | 건수 | 비율(%) |
|------|------|--------|
| 매수 | 116건 | 83.45% |
| 보유 | 23건 | 16.55% |
| 매도 | 0건 | 0%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